

연구소 소식

2015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 10일 (금) 대회의실에서 ‘육아선진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한 ‘2015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 정혜손 원장,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보육인력 개발국장, 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광진 센터장,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김현진 사무국장,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남정 센터장,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김승옥 센터장이 발표자로 참석한 가운데 해당기관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육아지원 사업을 소개하였고, 이어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 부연구위원이 ‘지역사회 내 영유아 육아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2015 세계교육포럼 사전행사 개최

교육부가 5월 19~22일 총 4일 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15)’을 개최한 가운데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5월 18일 본 포럼의 사전행사를 진행했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교육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1990년 태국, 2000년 세네갈에 이어 15년 만에 대한민국 인천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Transforming life through Education)”를 이번 포럼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누리과정: 한국ECCE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육아정책연구소 우남희 소장과 UNESCO 김광조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장의 개회사로 행사의 개막을 알렸으며, 문무경 선임연구위원과 이정림 연구위원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학 정책효과와 한국 유아교육·보육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ARNEC(아태지역유아네트워크) Sheldon Shaeffer 고문, UNESCO Maki Hayasikawa 기초교육부본부장, 인천대 안효진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누리과정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2015년 제2~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4~6월 동안 총 3차례의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4월 9일(목)에 개최한 제2차 심포지엄에서는 2015년도 신규 채용한 연구직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발표 및 연구주제 및 분야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남희 소장을 비롯한 연구진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강은진 연구위원, 박창현 부연구위원, 김아름 부연구위원, 박원순 부연구위원이 지금까지 연구해온 연구 실적 및 향후 연구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어 4월 28일(화) 제3차 심포지움에서는 이진화 연구위원과 배운진 부연구위원이 ‘유치원의 안전한 실내·외 환경관리를 위한 탐색’을 주제로 해마다 늘어가는 유아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이 갖춰야 할 시설, 환경 등을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5월 26일(화) 제4차 심포지움으로에서는 이윤진 연구위원이 ‘육아정책과 아동중심 사상’을 주제로 모성을 강조하며 어머니가 직접양육을 호소하는 루소, 페스탈로찌의 사상 및 학문적 사상을 돌아보며 이와는 반대로 양육의 사회화, 양육의 집단화를 전제로 하는 현대사회의 육아정책의 상반된 모습을 이야기했다.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한 오늘날, 근대 모성의 잣대로 자녀 양육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며,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여 시대에 맞는 육아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